

봄이 왔는데도 봄 같지가 않다. 하늘은 황사로 뿌옇고 날씨는 영도를 오르내린다. 정치계와 경제계의 기상도 흐리다. 이런 때에는 야구장의 호쾌한 타격소리가 그립다. 지난 화요일 오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결승전은 우리의 눈과 귀를 씻어주었다. 승부는 '9회 말 투아웃부터' 라는 명언은 빈 말이 아니었다. 역사의 명승부들 역시 9회 말 투아웃에 일어났다. 전광판의 게임스코어 판이 3:1을 가리켰다. 관중들은 숨을 죽였다.

투수의 볼이 포수 앞에 다가왔다. 순간! 타자는 방망이를 휘둘렀다. 호쾌한 타격소리가 그라운드를 적었다. 흰 공은 물 샴 없는 수비선수 사이를 뚫고 나아갔다. 2타점 안타였다. 경기장은 온통 열광했다. 전광판은 3:3이 되었다. 야구의 묘미가 온몸에 전해졌다. 미국 LA의 다저 스타디움에서였다. 그 주역은 김인식(62) 감독이 이끄는 한국야구팀이었다. 한국팀은 '사인 불통'으로 연장전 끝에 준우승에 머물렀다. 하지만 '우리들의 행복했던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 경기는 끝났지만 김 감독의 '위대한 도전'이 회자되고 있다. 그는 2004년 뇌경색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했다. 김경문(두산), 김성근(SK) 감독 등의 젊은 감독들이 '독배'를 떠안고 대표팀 감독을 고사한 직후였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WBC 감독자리를 그에게 떠맡기려 했다. 주변 지기들은 건강을 이유로 말렸다. 하지만 그는 '국



불자 세상보기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 시인

명장의 리더십과 용인술

가가 있어야 야구가 있다'며 감독직을 맡았다. 처음에는 대표팀 구성도 어려웠다. 하지만 김 감독은 실망하지 않았다. 그는 '선수기용'과 '작전구사'로 대표팀의 빈틈을 보완했다. 그리고 '상대분석'을 통해 상대팀의 빈틈을 겨냥했다. 우선 김 감독은 '스물 볼'과 '통 볼'을 자유자재로 구사했다. 그는 기존의 틀에 매이지 않았다. 선수와 상황에 맞는 '토털 베이스볼'과 '휴먼 볼'로 맞섰다. 버릴 때는 과감히 버렸고 쫓을 때는 악착같이 쫓았다. 또 '여유의 미학'과 '감각

적인 선수교체'로 감성야구를 이끌었다. 동시에 어떤 상황에서든 선수를 믿어주는 '신뢰야구'를 펼쳤다. 이로 인해 코치 7명과 선수 28명의 마음을 얻었다. 그 위에서 그는 선수들의 '강한 후혼'을 끌어내었다. 선수들은 질투겨리는 감독을 충심으로 따르고 그라운드에서 온몸을 던졌다. 비록 사인이 맞지 않아 일본에 졌지만 그의 리더십과 용인술은 '달인'의 것이었다. 애초에 그의 인생은 화려하지 않았다. 선수시절이나 감독시절에도 굴곡이

많았다. '엘리트 인생'으로 살았던 일본의 하라(51) 감독과는 달랐다. 한때 '잡초인생'으로 살았지만 김 감독은 강인했다.

우리의 삶 곳곳에도 이런 역전 드라마가 내재해 있다. 별 불일 없던 인생도 '시절 인연을 만나면' 꽃을 피울 수 있다. <잡아함경>에서 부처님은 '인연 없는 중생은 구제할 수 없다'고 하셨다. 하지만 대승 경전에서 부처님은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한다'고 했다. 이러한 충절을 해소할 수 있는 지혜의 활로 역시 '인연'에 있다. 아직 '시절인연이 도래하지 않은 중생은 구제할 수 없다' 하지만 언젠가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성불할 수 있다'고 말이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다. 때문에 역경 속에서도 '시절 인연의 도래'를 기다리는 인생 태도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불교공부의 핵심은 자기를 이기는 '극기'와 자기를 낮추는 '하심'에 있다. 김인식 감독은 '믿음의 리더십'으로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국민감독이 된 그는 '위기관리형 리더'로서 손색이 없는 명장이었다. 정치와 경제의 기상이 흐른 이 때 우리는 강력한 리더십을 지닌 존경받는 영웅을 기다리고 있다. 명장은 곳곳에 있다. 다만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뿐이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불만평
박구원

인권위 축소

구속이 따로 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승호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인곡동 175-87 인곡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광고포탈 부디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영주지사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519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4월의 테마-감사합니다

약간은 시샘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자신을 제척질하는 것이며, 성숙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꽃망울이 벌어지지 않으면 언제든 또 다시 계절을 시샘하는 찬바람이 거리를 휘감은 어제 만난 신도들의 말이다. 갑작스레 법당을 찾은 두 분의 신도에게 "웬일이야?" 하고 말하자 꽃들이 얼어 죽을까 봐 걱정돼 왔단다.

"거리에 생동감이 넘치는데 갑작스레 찬바람이 부니 우리라도 힘내라고 응원해야 하잖아요."

하긴, 세상이 온통 찬바람으로 넘치고 있다.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세계적인 경제 한파 속에 뿔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치고 있다. 우울한 세상 속에서 봄의 향기를 논하는 것이 사치스러운 일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오늘 존재하기에 봄을 만나고 그 향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늘 보다 나은 하루가 되길 기도한다. 법당을 찾아오는 신도들의 일상이 무

봄꽃 향기에도 감사하자

사하길 염원하며, 인연 있는 사람들의 하루가 웃음으로 넘쳐나길 기원한다. 아니 주변 모든 사람들의 염원이 뜻대로 성취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거리를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슬픈 눈과 우울한 표정으로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

일상은 평범한 것인데 저들을 슬프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관음보살은 어디에 계시지? 부처님의 위신력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그들이 계시다면 저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을 텐데. 언제나 마음속에 휘도는 것은 한없이 작은 나의 초상이며, 무력한 능력이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라고 했다. 정말 가진 것이 너무 없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 아픈 일이 분명하지만 그가 노력했는가 알아보고 싶다. 구걸이라도 하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이 거리에서 혼자라는 고통과 절망을 품고 서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빵과 꿈, 그리고 열매가 작다고 탓할게 아니라 오늘도 하루를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이런 봄 양자바른 담장 밑의 들꽃을 보며 생명의 환희를 느꼈다는 선사들

의 이야기가 아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고, 그들과 호흡하며 생명의 맥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약간의 시샘은 있을지라도 깨어나나 진달래의 화사한 속에서 내일의 희망을 찾을 수 있지 않은가? 그 긴 겨울의 혹한을 견디고 피우는 꽃을 보면 우리의 내일도 분명하게 꽃피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서두루지 말기로 했다. 기도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내일에 앞서 오늘이 있지만 오늘이 없는 내일은 상상할 수 없다. 그렇기에 오늘 감사한 마음을 지닐 수 있다. 꽃이 움츠러들고 걱정하는 신도들의 마음처럼 서로를 위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내일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이제 꽃을 걱정하지 마. 자기의 길은 자기가 가는 것이야" 하는 말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상 없을 것이다.



덕륜스님
울산 연화정사 주지

社說

알찬 봉축기간이 되려면

사찰마다 연등 만드는 손길이 분주하다. 봉축 기간이 다가 온 것이다. 해마다 그랬지만 봉축 기간은 국민 누구에게나 흥겹고 새로운 발원을 하는 축제 기간이 되어야 한다. 불자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전 국민이 경제난을 극복하고 범죄 없는 세상, 비리와 부정부패가 없는 세상을 발원 하는 기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북한이 미사일 발사라는 위험한 카드를 꺼내 놓고 국제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는 분위기 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불교계가 축제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봉축 기간이 국민들에게 즐거운 희망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지리멸렬한 기간이 되기도 한다. 올해는 경제난 속에 치러지는 축제가니만큼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담아야 할 것이다. 지나치게 외형을 강조하기 보다는 이웃과 더불어 부처님 오신 뜻을 새기고 바른 삶의 지향을 추스르는 자세를 불교계가 실천해야 할 것이다.

연등축제가 종교적 성스러움이 배제되거나 세속적 유희이 지나치지 않은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그런 만큼 이제 연등축제와 각종 봉축행사는 종교를 초월해 하나의 문화로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

올 봉축 기간 불자들은 어느 해보다 어려운 이웃을 향해 더 많은 눈길과 손길을 주어야 한다. 부처님오신날 불자들이 밝히는 연등은 바로 자신을 밝히고 이웃의 무명을 걷어 내는 행복과 희망의 등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눔의 등불 크게 타오르길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불교계에 나눔의 바람이 불고 있다. 3월 27일 전국 조계종 사찰에서 '저소득 실직자정을 위한 1배 100원 108배' 모금 법회가 열렸다. 또 자비의 연등달기와 자비의 쌀 나누기 등 관련 행사도 잇따라 열리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나눔 운동은 국민의 수준을 가능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나눔 문화가 얼마나 정착됐느냐에 따라 그 나라 국민의 문화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한다. 해마다 불교계는 봉축기간을 맞아 나눔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왔고 올해는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다.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한 비구니스님이 자신의 원력으로 조성해 운영하던 어린이 복지시설 일체를 조계종 복지재단에 기부했다는 소식도 있다. 출가자의 무소유 정신을 실천한 이 스님은 오늘날 승단에 버거가고 있는 '소유욕'에 커다란 경종을 울렸다는 평도 듣고 있다.

불교는 자비와 지혜의 종교다. 나를 버려 이웃을 구하는 것이 자비의 실천이고 그러한 행위를 배우는 것이 지혜다. 기복에 목숨을 걸면 불교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한 사회의 건전한 생활문화를 이끌어 가는 종교가 되기 위해 불교는 보다 많은 것을 나누고 어울려야 한다. 그런 풍토 속에서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고 미래를 가능하며 중생을 영도하는 종교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불교에 있는 불교계의 나눔 운동이 보다 많은 불자들의 동참으로 우리 사회를 밝히는 커다란 등불이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우학스님의 빛깔있는 법문(전5권)에 이어 부처님이 계신 화엄의 세계, 그 화엄의 세계에 들기 위한 불자의 삶의 자세를 우학스님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풀어낸 생활 속 법문집!

화엄경약찬계 법문(1)
글과사진 無一 우학스님

“해인삼매, 화엄삼매로 꽃피다.”

해인삼매가 일체만사一切萬象의 실상을 비춘 세계라면 화엄삼매란 현실의 삶에서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행위로 나타납니다. 즉 비로자나의 세계인 해인삼매를 현실의 삶에 구현하고 부처님 세계, 정토세계를 이루기 위해 중생교화를 향한 자비의 대의지가 화엄삼매인 것입니다. 부처님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세계를 떠나 따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는 현재적 Present이고, 긍정적 Positive이고, 인간적 Personal이며, 대중적 Popular인 종교입니다.

(한국불교대학 서점(053-474-8229)이나 가까운 불교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부속) 도서출판 좋은인연 (일학상당) 053 474 8228 | www.TVBuddha.co.kr 053 475 3707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C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C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